

05  
2025

재외동포의



이달의 재외동포 \_ 쿠바 독립운동가 임천택

특집 \_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이슈 앤 화제 \_ 이상덕 청장, 프랑스 입양동포 · 한글학교 교사 격려  
재외동포청장 “파독근로자 헌신, 조국 근대화의 초석”

기획 \_ 멕시코 한인 이민 120주년... ‘눈물의 애니깽’에서 이젠 ‘비바 꼬레야’





#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의 최대 규모 행사인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가 지난 4월 20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6억6천만달러(한화 약 9천900억원)에 이르는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4천990만달러(한화 약 740억원) 상당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2002년 시작해 올해 23번째를 맞은 이 대회는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들에게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애틀랜타 대회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서 나아가 대한민국과 동포 경제인들이 한민족 경제공동체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기관장으로서 이번 대회의 3가지 중요한 장면을 꼽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대회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17일 개최된 개회식에서 올해를 '한상경제권 구축' 원년으로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한상경제권은 동포 기업인과 국내기업인을 묶어 생산·소비·투자·인력 이동·공급망 구축이 촉진되도록 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인데요, 작년에도 대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최근 강대국 간 통상분쟁과 보호무역주의로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민족 경제공동체'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상경제권 원년 선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시의적절한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대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K-푸드, K-뷰티, K-바이오 등 한류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주목 받는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시회에 391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해외 바이어와의 교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단순한 전시를 넘어, 총 86건 1억5천만달러 규모(한화 약 2천250억원)의 업무협약(MOU) 체결 성과도 거뒀습니다. 한류의 힘이 더해진 한상의 힘이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하는 중요한 자산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 최대 대미 투자처 중 한 곳이자 한미 양국 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조지아주에서 열린 것도 주목할만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력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긴요한 시점에서 G2G포럼 등을 통해 양국의 지자체 및 주정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제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불확실한 국제 통상 환경을 헤쳐 나가고 한미 경제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더 이상 단순한 교류 행사가 아닙니다.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며,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상경제권을 구축하고 전 세계 한인경제인들과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상생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모든 한상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창**





- 02 창을 열며**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 04 이달의 재외동포** 쿠바 독립운동가 임천택
- 06 특집**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  
26개국 62명 참가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성료  
인터뷰 - 아르헨티나 출신 약리학자 송 솔카롤라 교수  
우즈베키스탄 올레시아 리 '올레' 대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최수아  
데이비드 김 미국 시애틀시 국제관계 총괄
- 12 이슈 앤 화제** 이상덕 청장, 프랑스 입양동포·한글학교 교사 격려  
재외동포청장 "파독근로자 헌신, 조국 근대화의 초석"
- 16 기획** 멕시코 한인 이민 120주년  
'눈물의 애니깽'에서 이젠 '비바 꼬레야'
- 18 정책 돋보기** 이상덕 청장 "입양동포 국내 정착지원은 국가의 책무"
- 20 초대석** 이경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총회장
- 22 OKA 뉴스** 재외동포청장, 베트남서 동포정책 강연...한인 소상공인도 격려 외
- 24 뉴스속으로** 노르웨이 심장을 울린 한국인 음악계 거장 정순미
- 25 기고문** 뿌리를 향한 귀환, 문화를 통한 미래...동포 연대의 길  
채예진 (사)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KGN) 이사장
- 26 재외동포청 공지** 2025년 제1기 한국어 특별강좌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발행인:** 이상덕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2-6747-0404, 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쿠바 독립운동가 임천택

독립자금 모금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민족교육에도 앞장  
쿠바 한인 이민사 및 독립운동사 출간...건국훈장 애국장 수훈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2025년 5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쿠바 한인사회 독립운동의 선구자 임천택(1903~1985) 지사를 선정했다.

임천택 지사는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 1세대로, 대한민국민회 쿠바 지방회 조직, 독립운동 자금 모금, 청년 민족 교육 및 언론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에 앞장선 인물이다.

1903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난 임 지사는 1905년 어머니를 따라 멕시코 유카탄으로 이주했다. 이후 멕시코 혁명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1921년, 300여 명의 한인과 함께 쿠바로 재이주해 쿠바 마탄사스 지역에 정착했다.

쿠바 주재 일본 영사관이 한인들에게 일본인으로 재외국민 등록을 요구하자 임 지사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민회 마탄사스지방회'를 설립했다. 서기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총무, 회장, 고문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아 쿠바 현지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임천택 지사

### 보훈부, 2024년 10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1941년 일본군이 미국 진주만을 공습하자 한인들의 광복 의지와 일본인들과의 차별성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해 쿠바 내 3개 국민회 지방회를 대표하는 11인 중 한 명으로 '재규한족연합외교회' 결성을 주도했다. 2년 뒤에는 이를 발전시킨 '재규한족단'을 출범시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에 나섰다.

임 지사는 김구 선생으로부터 임시정부가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편지를 받고, 쿠바 한인들을 규합해 식구 수대로 쌀 한 숟가락씩을 모아 자금을 마련해 독립운동 자금도 지원했다.

1937년부터 1944년까지 1천289달러의 기금을 모아 대한민국민회 중앙총회에 납부했으며, 246달러를 모아 쿠바

아바나 소재 중국 은행을 통해 충칭(重慶) 임시정부 김구 선생에게 송금했다. 일주일에 겨우 2~3달러 남짓이었던 당시 한인들의 임금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1929년에 일어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1930년 한인 100여 명과 함께 지지대회를 열고 특별후원금 100달러를 모금해 조국으로 송금하기도 했다.

김구 선생은 이러한 쿠바 동포들의 독립자금 지원에 대해 "미국 본토와 하와이, 멕시코, 쿠바의 1만여 명의 동포는 비록 대다수가 노동자였지만 애국심은 강렬했다"고 백범일지에 기록했다.

또한 그는 민족 교육과 언론 활동을 통해 쿠바 한인 청년들의 민족 정체성 확립과 쿠바 한인 이민사·독립운동사 기록에 매진했다.



1925년 쿠바 최초의 한인학교인 '민성국어학교' 교사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교장직을 맡아 수년간 한글, 역사, 문화를 가르치며 민족 교육과 차세대 한인의 정체성 함양에 힘썼다.

1930년 재정난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민성국어학교'를 재건하고, 야학교 '청년학원'을 설립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독서, 강연, 토론 교육을 실시하며 독립운동을 이끌 차세대 지도자 양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1930년대부터 10여년간 '신한민보' 쿠바 통신원으로 활동한 그는 쿠바 한인사회의 독립운동 상황을 미국과 한국에 알렸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한 '공보' 등의 잡지를 쿠바 한인사회에 배포해 조국 독립을 위한 국제적 연대활동을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또한 1941년부터 '신한민보'에 '쿠바 재류동포의 이주 20년 역사'를 연재했고, 이를 바탕으로 1954년 '쿠바이민사'를 출간했다. 이 책은 쿠바 한인 이민사와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기록물로, 오늘날 해외 한인사 연구의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임천택 지사의 공훈을 기려 1997년 우리 정부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으며, 국가보훈부는 2024년 10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해 그의 뜻을 기렸다.

이상덕 청장은 "임천택 지사는 지구 반대편에서 조국 독립의 희망을 꽃피운 애국자였다"며 "일평생에 걸친 조국에 대한 헌신을 조명해 그의 숭고한 업적을 후대가 보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한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 임 지사 손녀, 지난해 동포청 초청 모국 방문

동포청은 지난해 2월 우리나라와 쿠바의 수교를 기념해 작년 12월 임천택 지사의 손녀 노라 임 알론소를 비롯한 쿠바 한인 3~4세를 국내로 초청해 선조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돌아보는 등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임천택 지사의 손녀 노라 림 알론소는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할아버지를 회고 했다.

"대한민국을 할아버지의 나라로만 알고 있었지, 사실 잘 몰랐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어렵게 살았다는 이미지만 있는데 와서 보니 많이 발전돼 있어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스페인 출신이어서 할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부터 한국 음식 요리를 많이 가르쳐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한국



2024년 12월 재외동포청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할아버지 임천택 지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는 손녀 노라 임 알론소

음식을 먹고 자랐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쿠바에서 한국어학교도 설립해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 식민지였던 쿠바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 스페인어도 열심히 배워 함께 이주해 온 한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한인으로서 뿌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자녀 교육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였죠. 그래서 큰 아버지 헤로니모 임(한국명 임은조)은 쿠바 정부 산업식량부 차관과 한인회장을 지냈고, 생존해 있는 고모 마르타 임(86)은 '쿠바의 한인들'이라는 책도 스페인어와 한국어로 펴냈습니다."

### 임 지사 증손자 대한민국 국적 취득

임천택 지사의 증손자로 충남대 대학원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영 임 편잔 안토니오(28)씨는 지난해 8월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 발전 또는 거주국 내 한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동포를 발굴해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 3월 첫 번째로 제주 관광산업 발전을 이끈 재일동포 기업인 고 김평진(1926~2007) 전 재일제주개발협회장에 이어 4월 재미동포 기부왕 고 흥명기(1934~2021) 전 M&L Hong 재단 이사장을 선정한 바 있다. **▶**



## 26개국 62명 참가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성료

재외동포청,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구축 목표로 올해 27번째 개최  
이상덕 청장, 참가자들에게 “여러분은 글로벌 네트워크 이끌어갈 주역”



27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연결된 세계 속 한인, 더 큰 도약'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열린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최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치인, 독립유공자 후손, 국제기구 직원 등 각국에서 활약하는 다양한 직업군의 젊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돕는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27~30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막을 내렸다.

재외동포청은 27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2층 프리미어볼룸에서 '연결된 세계 속 한인, 더 큰 도약'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회 개최식을 개최했다.

올해 27회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독일 등 26개국 62명의

차세대 한인 리더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정치와 경제, 법률, 의료,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지난해 카말라 해리스 대선 캠프 정치부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김 미국 시애틀시 국제파트너십 및 홍보 담당,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 담당을 지낸 이 팔(1898~1963) 애국지사의 후손인 고려인 4세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민용가 씨 등이 방한했다.

### 정치인, 교수, 변호사 등 다양한 직군 전문가 참가

또 의사 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대 약학 조교수로 일하는 송 솔 카롤라 박사, 6개 국어에 능통한 노르웨이 금융계 회사의 강한나 씨, 가자지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서 개최사 하는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팔레스타인사무소의 최수아 씨 등도 고국을 찾았다.

이날 개최식은 주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이상덕 청장의 개회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환영사, 김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국민의힘)와 이기현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조영희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의 축사, 참가자 대표(아르헨티나의 송 솔카롤라)의 답사, 기념촬영 및 환영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개회식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끌어갈 주역인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작년 7월말 동포청장에 취임한 저는 외교관 출신으로 1980년대, 1990년대 해외에 다니면서 동포사회를 접했다. 이민 1세대 선배들은 초기에 어려움을 딛고 노력하고 헌신한 결과 여러분처럼 훌륭한 후배들을 탄생시켰다.”고 말했다.

### 이 청장 “이방인 아닌 현지서도 소중한 자산”

이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이방인이 아니며 현지에서도 소중한 자산”이라며 “여러분은 고국에도 기여하고,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협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동포청은 이러한 활동을 진심으로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축사에서 “인천은 재외동포 역사의 출발지이자 재외동포청이 있는 재외동포 활동의 거점”이라며 “인천에서의 만남이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62명의 참가자를 대표해 답사에 나선 송 솔카롤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약리학 교수는 “대회 참가자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서게 돼 진심으로 영광”이라며 “각 분야에서 성장해 미래의 리더가 될 우리는 이번 대회 기간에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의하는 동시에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위한 우수사례 확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지역의 모든 차

세대를 위한 멘토와 리더가 돼 달라”고 당부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고,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책과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위원장은 “한국이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각국에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회식 직후에는 하와이 한인 이민 120년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음악 영화 ‘하와이 연가’가 상영됐다.

지난해 말 국내에서 개봉한 이진영 감독의 이 작품은 1902년 조선을 떠나 하와이로 향한 이민자들과 그 후손 등 초창기 재외동포의 삶을 다뤘다.

참가자들은 28일 주류사회 진출 및 한인 정체성 확립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 차세대대회와 소속 단체의 모범 활동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 국회부 의장과의 차담회, 재외동포청장과의 대화 등에도 참여했다.

### ‘차세대 역할과 네트워크 확대 방안’ 주제 토의

대회 3일 차인 29일에는 ‘차세대 역할과 네트워크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의했고, 국회 투어와 남산국악당 공연 관람했다.

이후 30일 종합 토론과 조별 발표를 거쳐 폐회식을 끝으로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지역별 대표들은 행사 종료 후 1박 2일 일정으로 이어진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대표자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한인 차세대 서밋’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차세대 동포가 한인 리더로서 주류사회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차세대 한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998년 재외동포재단 때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재외동포청 설립 이후로 3번째 개최하는 행사다.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1천700여 명의 차세대 리더가 참여했다.

지난해 지역 차세대대회는 미국(뉴욕, 애틀랜타), 영국(런던), 카자흐스탄(알마티)등 4개 지역에서 개최됐다. 각 대회에서는 현지 동포사회의 현안 이슈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토론했다. [▶](#)



## “잃어버린 조각을 다시 찾은 느낌이에요”

2025 한인 차세대 컨퍼런스 참가 아르헨티나 출신 약리학자 송 솔카롤라 교수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다시 찾은 듯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에서 약리학 교수로 재직 중인 송 솔카롤라(27) 박사는 27~3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가하며 느낀 감회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생애 첫 한국 방문이자 전 세계 차세대 한인 리더들과의 만남이라는 이중의 의미는 자신에게 남다른 감동을 안겨준다고 했다. 62명의 참가자 가운데 최연소인 송 교수는 이번 행사 개최식에서 차세대 참가자를 대표해 답사를 하기도 했다.

송 교수는 집에서는 한국의 전통을 배우며 성장했고, 사회에서는 아르헨티나의 문화 속에서 생활해왔다. 이러한 배경은 그에게 자연스러운 이중문화 정체성을 형성하게 했으며, 이는 의료인이자 교육자로서의 삶에 깊이 녹아들어 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대에서 약리학 교수로 재직 중인 송 솔카롤라(27) 박사

### “이중문화 정체성과 가족은 저에게 큰 힘”

그는 “한국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중문화 정체성과 가족, 아르헨티나 내 한인사회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면서 “이번 모국 방문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세계 한인 전문가들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시각을 나누고 장기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경험이라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임상 경험, 학술 연구, 그리고 국제적 교류 경험을 두루 갖췄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심장내과와 소화기내과에서 연수를 수료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글로벌 헬스케어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향후 차세대 네트워크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국경을 초월한 학술 프로그램과

멘토링 플랫폼, 그리고 의료 연구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 어디서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송 교수는 특히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모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저는 임상 지식과 연구 경험을 공유하고, 건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특히 한인 사회와 중남미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공공의료와 환자 치료의 혁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는 “한국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특히 교육을 중시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성장을 이뤄내는 것을 볼 때 한국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세계 각국의 의료인들과 협력하고 있는 삶의 중심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끈기와 따뜻한 배려의 정신은 제가 일상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한국인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 “K-뷰티가 세계에 긍정적 영향 줄 때 가장 뿌듯해요”

##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 우즈베키스탄 올레시아 리 ‘올레’ 대표

“중양아시아 기후에서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한국 화장품, 그 필요에 의해서 ‘올레(OLLEE)’가 탄생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에서 따 지난 2020년 창업한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 ‘올레(OLLEE)’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올레시아 리는 29일 연합뉴스와 만나 자신이 만든 브랜드의 시작점이자 철학을 이렇게 설명했다.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가한 그는 거주국인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등지에 K-뷰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여성 기업인으로, 현지의 기후와 피부 특성에 맞춘 제품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이번 대회 참여가 특별히 의미 있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매우 고무적이었고, 연사들의 통찰력 있는 강연들은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유익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재외동포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K-뷰티가 세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자부심

리 대표는 차세대 한인 네트워크의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차세대 한인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혁신적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기업가로서의 자신이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모국을 위한 기여 뜻을 내비쳤다.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 창업가들을 멘토링하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확장을 통해 대한민국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레시아 리 우즈베키스탄 ‘올레’ 대표

리 대표는 조부모를 통해 한인의 정체성과 전통문화에 대해 깊은 자부심 지킬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전통, 문화, 그리고 뷰티 산업이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자부심은 더욱 커진다”면서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한국의 문화적 힘을 세계인들과 공유하는 것은 큰 기쁨”이라고 전했다.

그는 고려인비즈니스클럽 자선활동분과위원장을 맡아 양로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봉사 활동과 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중앙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K-뷰티의 새 길을 개척하고 있는 올레시아 리 대표. 그는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 문화와 가치를 함께 전파하는 K-뷰티 외교관으로서, 자신의 뿌리인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고 있다. 

# “세계를 향해 열린 한국의 얼굴이 되고 싶어요”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최수아 “완전히 다른 궤적 속 동포들 만나고 싶었어요”

**전**쟁과 재난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며, 한국인의 이름으로 세계를 누비는 이가 있다. 최수아 씨는 유엔 세계식량 계획(WFP)에서 활동 중인 국제 구호 전문가다. 최근 에티오피아 근무를 마치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새롭게 배치된 그는 로힝야 난민 긴급 구호, 레바논-이스라엘 국경 전쟁 대응 등 세계 각지의 분쟁과 재난 현장에서 국제사회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해 왔다.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 일시 귀국한 그는 연합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구호활동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행복해질 방법이라도 찾자는 마음으로 영국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며 2년간 세계를 여행했고, 그 과정에서 WFP 관계자를 만나 지금의 길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번 세계한인차세대대회 62명의 참가자 가운데 유일한 한국 국적인 그는 ‘외부 공기’를 마시는 듯한 신선한 경험이라고 했다. “구호 현장과 국제기구라는 좁은 생태계 안에서 일상의 언어와 세계관이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전혀 다른 분야, 다른 궤적을 가진 동포들과 만나 서로의 세계를 섞어보고 싶었습니다. 사고의 환기, 새로운 시선의 확장이 됐습니다.”

### “네트워크는 장(場)이 열려 있는가에서 시작”

다양한 배경의 차세대 한인들과의 만남은 그의 세계에 또 하나의 지층을 형성해 주었고, 그런 만남이야말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네트워크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네트워크는 장이 열려 있는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크든 작든 지속적인 만남의 장만 마련해 준다면, 그 안에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서 활동 중인 국제 구호 전문가 최수아 씨

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논의와 협업이 자생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가 생각하는 자신의 기여는, 더 많은 한국 청년들이 세계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자신이 겪은 경험을 나누는 작지만 의미 있는 활동이 그 첫걸음이 된다고 믿는다.

“낮선 나라에서 한국 여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경계심 없이 말을 걸어오고, 한국에 대해 알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들이 있어요. K-드라마나 K-푸드, K-뷰티 이야기를 통해 금세 친밀해질 수 있는 게 지금 한국의 문화력이죠.”

그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자연스러운 호감과 연결’을 만들어내는 국가가 되었다고 말한다. “돈 많고 힘 센 친구보다, 노래 잘하거나 감각 있는 친구가 인기 있잖아요. 지금 한국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저는 그 한국의 한 부분으로서, 더 많은 연결을 만들고 싶습니다.” **창**



# “모국과 세계 잇는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 강화할 때”

## 데이비드 김 미국 시애틀시 국제관계 총괄 “한미동맹, 지역과 세대 넘어 소중한 자산”

“재외동포 차세대 네트워크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지금은 모국과 세계를 잇는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를 강화할 때입니다.”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김 미국 시애틀시 국제관계 총괄은 28일 기자와 만나 대회 참가 소감에 대해 “전 세계에서 온 차세대 리더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시각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미 국무부,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그리고 시애틀시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국가 정책부터 지역 외교까지 두루 경험한 한인 2세대.

그는 현재 미국 시애틀시와 시의회 국제관계를 총괄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왔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 관련 업무를 시작해, 국무부에서는 교육·문화 교류, 국제안보·핵비확산, 미일 관계 등에서 경험을 쌓았다. 이후 미국의 싱크탱크인 스티븐 센터에서는 한미(남북) 관계 및 핵안보를 연구했고, 2019~2021년에는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전략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했다.

정치 캠페인에도 참여해, 버락 오바마(2008년)와 카멀라 해리스 대선 캠프 등 주요 정치인들과 함께 활동한 경력도 지녔다.

데이비드 김은 차세대 프로그램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네트워크가 지속 가능하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얼마 전 워싱턴주 신디 류 하원의원과 나눈 대화에서, 그녀가 재외한인 선출직 공직자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네트워크를 장기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힘쓴다면, 이는 가장 전략적인 자원이며 양국 관계를 실질적으로



데이비드 김 미국 시애틀시 국제관계 총괄

움직이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는 특히 연방과 지방 차원에서 모두 한미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험을 전하며, “한미동맹은 지역과 세대를 넘어 이어 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역설했다.

데이비드 김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 가장 인상 깊은 순간으로 2023년과 2024년, 시애틀 시장 및 대표단의 방한 일정을 꼽았다. 그는 “대전시와의 자매도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애틀의 혁신적인 스타트업 문화와 기술을 한국의 주요 리더들과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시애틀에 문을 연 ‘대전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시 정부와 대전시 간 지속적인 파트너십의 실질적 결과라고 소개했다.

그는 일상에서도 친구들과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데 큰 즐거움을 느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 드라마와 음식을 이야기하며 국경을 넘는 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한국이 가진 ‘문화와 네트워크의 힘’이며, 저 또한 그 안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

# 이상덕 청장, 프랑스 입양동포 · 한글학교 교사 격려

## 프랑스 주요 동포단체장과도 소통 “정체성 회복 노력,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

**재**외동포청은 이상덕 청장이 프랑스 파리를 방문,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입양동포 및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고 19일 밝혔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입양동포가 가장 많은 나라다.

지난 16일 파리 소재 소피텔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프랑스 입양동포 단체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한국의 뿌리협회’(회장 이재동)와 코리아낭트협회(회장 전현주) 회원 및 프랑스 주류사회에 진출한 입양동포 50여명이 함께했다.

이상덕 청장은 인사말에서 “입양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성공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며 한인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하다”며 모국 정부도 진심을 다해 입양동포들

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김민철 동포청 교류협력국장이 입양동포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 및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참석자들과의 소통도 이어졌다.

이재동 회장은 간담회를 마련해 준 동포청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동포청의 지원을 받아 오는 9월 협회 창립 39주년 행사를 프랑스 전역을 아우르는 규모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주 회장은 “입양인들은 한국이 뿌리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을 거주국에 더 알리려고 노력한다”며 현지에서의 한국 문화·예술 홍보, 입양동포를 위한 모임 개최 등 협회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입양동포들은 2~3세대를 위한 모국 초청 연수 및 장학제도 신설, 2세의 한국 국적 유지 필요성 등을 동포청에 건의했다.

이 청장은 같은 날 오후에는 유럽한글학교협의회(회장 이장석) 교사연수에 참석, 유럽 전역의 18개국 64개 한글학교에서 참가한 현장 교사 150여명과



이상덕 청장이 16일 유럽한글학교협의회 교사연수에 참석, 유럽 전역의 18개국 64개 한글학교에서 참가한 현장 교사 150여명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상덕 동포청장이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해외 입양동포 첫 초청 간담회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강당에 모인 교사들은 이 청장의 방문에 박수로 환호하며, 국외에서 한글 교육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현장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드러냈다.

### 교사 연수 '뿌리를 담아 세계로' 주제로 열려

이번 교사연수는 재외동포청의 후원과 주프랑스대한국대사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세계한인무역협회, 재불한인여성회, 프랑스한인과학기술협회, 영·프·독 3국 교육원 등 여러 기관의 협조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올해 연수는 '뿌리를 담아 세계로'라는 주제로,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최신 교육 정보와 전문 강의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택수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시 풀스택과 소버린 시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어 수업'을 주제로, 한정희 백석대 교수는 '한국어 문법의 특징과 교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분과토론에서는 유치·초등반, 중·고등반, 성인·다문화반으로 나뉘어 각 반의 교육 사례와 고민을 공유하고 긍정적인 교수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이민호 주무관의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소개와 함께 향후 유럽권 한글학교와의 협업 방안 제시도 있었다.

교사들은 연수 중 언어교육법, 문화 체험수업 사례, 차세대 대상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에 적응하며 쌓은 경험들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돼, 교육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참가자들은 파리 시내 역사·문화 탐방과 교사 간 친교 프로그램, 다문화 동포 자녀 교육 방향에 대한 토의도 진행됐다.

### 이 청장 "언어 교육은 한인의 뿌리를 찾는 첫걸음"

이상덕 청장은 축사를 통해 "언어 교육은 한인의 뿌리를 찾는 첫걸음"이

라며, "시 시대에 한글학교 교육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연수가 그런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승현 주프랑스대사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한 창의적 교육 방법과 세계 시민의식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며, "교사들의 헌신 덕분에 유럽 동포 자녀들이 뿌리와 정체성을 찾아 자랑스러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상석 유럽한글학교협회회장은 개회사에서 "시와 디지털 시대의 도래 속에서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며, "한글학교는 언어 교육을 넘어 민족의 얼과 정신, 문화와 역사를 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들에게 "가르치며 배우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자세로 이번 연수를 통해 깊은 배움과 기쁨을 얻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지난 15일에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주요 동포단체 대표 30여명과 간담회에서 현지 동포사회 발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세대 간 소통 강화, 차세대 동포의 적극적인 활동 등을 당부했다.

동포단체 대표들은 해외 거주 동포에 대한 국내 부정적 인식 개선, 복수국적 연령 하향, 내년도 한불수교 140주년 준비를 위한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동포청은 전했다. [▶](#)





이상덕 동포청장은 17일 독일 에센 소재 파독광부기념회관을 방문해 파독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문했다.

## 재외동포청장 “파독근로자 헌신, 조국 근대화의 초석”

### 독일 에센 파독광부기념관 방문 입양인협회 · 한인회와 동포청장 주재 첫 간담회 개최

이 상덕 재외동포청장은 17일부터 이틀간 독일 에센과 베를린을 방문해 파독 근로자와 독일 동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동포청장이 현지를 방문해 동포들과 소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청장은 17일 에센의 파독광부기념회관을 찾아 전시된 파독 근로의 역사적 기록, 소장품 등을 둘러보며 그들의 헌신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 회관은 파독 근로자들의 헌신을 기리는 공간이자 재독 한인사회의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평가된다.

파독광부기념회관은 2009년 12월에 개관했으며 1960~70년대 독일로 파견된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들

이 사용했던 작업복, 헬멧, 사진, 노동계약서 등 다양한 유물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그들의 삶과 노고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 현지서 동포청장 주재 첫 동포간담회

이러 파독 근로자 출신 동포와 에센 지역 동포 50여 명을 기념회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파독 근로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대한민국 근대화 경제성장의 초석이 됐다”며 “조국이 어려웠던 시절 독일에서 땀 흘리며 큰 역할을 해주신 여러분이 재독 동포사회의 중심 역할을 맡아 한인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또 “파독 근로자들을 포함한 동포들의 모국 기여가 잊어지지 않고 그 역사적 공헌이 올바르게 기록되고 전해져 우리 국민들이 동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달의 재외동포’를 선정해 홍보하고 있다”고 알려주기도 했다.

정명규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장은 “재외동포청장의 이번 방문은 재독동포들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모국 정부의 관심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라며 “재독 동포사회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 이 청장, 파독근로자 등과 소통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동포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그간의 애로사항과 희망사항을 가감 없이 털어냈다. 이들은 “국적 회복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다”, “고령 동포가 많아 복지 지원이 절실하다”, “보조금 신청과 결과보고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국적회복 절차 간소화, 파독근로자 복지확대, 동포 대상 국내 의료보험 제도 개선, 보조금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 및 결과보고서 제출 절차 개선 등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이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직접 찾아온 것”이라며 “말씀하신 건의사항은 내부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한독입양인협회(KAD) 관계자도 만나

이상덕 청장은 18일 같은 장소에서 ‘입양인과 함께하는 한국 문화행사’를 준비중인 한국 독일 입양인협회(KAD) 임원진들을 만나 격려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친생부모 찾기 등에 있어 입양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모국 정부가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입양동포들

의 고충에 공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입양동포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양동포 전담창구 개설과 세계 입양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동포청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청장은 같은 날 베를린으로 이동해 주독일대사관에서 베를린 동포들 40여 명과 소통을 이어갔다.

베를린 동포들은 청소년 모국연수 지원 절차 개선, 동포단체 지원 확대, 복수 국적 취득 시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으며, 특히 차세대 단체와 전문직 종사자 대표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업 플랫폼 구축 사업 및 독일 한인의사네트워크 구축 계획 등을 소개했다.

### 이 청장 “어려움 해결위해 노력할 것”

이 청장은 “세대 간 연결을 강화하고, 젊은 세대가 동포사회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겠다”며 “현장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열린 동포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독일 동포사회는 현재 약 4만 5천 명. 이 중 다수가 파독 1세대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국을 떠나 생계를 위해 떠났던 그들이지만, 이들은 여전히 한국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들을 다시 조명하고 있는 이번 방문은 단순한 격려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모국과 연결되어 있는 ‘작은 대한민국’이 있다. 재외동포청의 이번 현지 행보는 그들을 향한 국가의 첫 인사이자, 새로운 동행의 출발점이었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18일 독일 베를린에서 동포 간담회를 열어 동포사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 ‘눈물의 애니깽’에서 이젠 ‘비바 꼬레아’

## 1905년 인천서 출항해 한 달여 만에 유카탄주 도착...1천31명 첫발

**올**해는 멕시코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는 해이다. 1905년 5월 멕시코에 도착한 한인 1천31명은 에네켄(애니깽) 농장에서 4년 안팎의 시간을 보낸 뒤 뿔뿔이 흩어져 현지에 뿌리를 내렸다. 현재 멕시코에는 3만여명의 후손이 살고 있다.

120년 전 한국인에게 멕시코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다.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와 부족한 먹거리로 곤궁에 빠졌던 선조들의 눈에 ‘묵서가’(墨西哥·멕시코를 뜻하는 한자어) 근로자를 모집하는 언론 광고는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문구로 채워졌다.

‘4년 계약. 주택 무료 임대. 높은 임금’이라는 조건의 초대장을 손에 쥔 1천33명은 그렇게 멕시코 첫 한인 이주민으로서 1905년 4월 4일 인천 제물포항에서 영국 상선 일포드호에 몸을 실었다.

일본 요코하마를 거친 일포드호는 출항 한 달여 뒤 멕시코 오악사카(와하카) 살리나크루스항에 닿을 내렸다. 그간 아이 2명과 어른 1명이 숨지고 아이 1명이 태어나 1천31명이 물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들은 곧바로 기차와 배로 이동해 유카탄 프로그레소항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10~25명씩 무리로 나뉘어 메리다의 에네켄 농장에 배치됐다.

### 농장서 4년 노동 후 디아스포라 생활

에네켄은 날카로운 잎을 가진 선인장의 일종이다. 에네켄은 당시 수요가 많았던 선박용 로프의 재료였다. 한인들은 이르면 오전 4시부터 일몰 때까지, 여름 한낮 기온 40도에 육박하는 불볕 더위 속에서 에네켄 잎을 자르고 섬유질을 벗겨냈다. 얼굴이 검게 타고, 가시에 찢려 손에서 피가 나기 일쑤였다. 임금 체불에 임대주택과 식량도 직접 구입해야 했다는 게 당시 상황을 연구한 역사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황성신문은 1905년 7월 29일자 사설에서 “조각난 떨어진 옷을 걸치고 다 떨어진 짚신을 신는다”, “한국 여인들의 처량한 모습은 가족같이 보이는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실정”, “농노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도다” 등과 같은 비탄 섞인



멕시코 에네켄 농장에서 일하던 한인 노동자들의 모습

글로 당시 한인들의 처참한 일상을 폭로하기도 했다.

계약 기간 종료 뒤에도 이주민들은 일제 치하에 놓인 고국에 돌아가기 어려웠고, 대부분 멕시코 전역으로 흩어져 정착하는 삶을 택했다. 일부는 멕시코 주민과 결혼하며 현지화했다. 1세대 이주 한인 중 270여명은 1921년 쿠바 사탕수수 농장으로도 넘어갔다. 이들은 현재 아바나와 마탄사스 등지에 사는 한국계 1천100여명의 선조다.

### 한글학교 건립·독립운동도 지원

멕시코 이주 한인들은 ‘고생을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실현하고 정체성 수호를 위해 한글학교를 설립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친 한편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해 모국에 보내기도 했다.

옛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에서 발행한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실태 조사 보고서: 멕시코, 쿠바’를 보면 유카탄반도 한인들은 농장 계약 만료를 앞두고 대한인국민회의 메리다 지방회를 설립해 국권 회복 운동을 전개했다. 무관 양성기관인 숭무학교(崇武學校)를 세워 군인을 양성하기도 했다.





2022년 멕시코시티 시내에 걸린 '한인 후손' 다큐멘터리 홍보물

현재 멕시코에는 이들의 후손 3만여명이 살고 있다. 세대를 거듭하며 외모나 언어는 현지화했으나, 한인후손회를 조직해 활동하거나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기며 뿌리를 기억하고 있다.

2022년 '데센디엔테스(Descendientes. 후손이라는 뜻의 스페인어) 후손'이라는 제목의 23분 분량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멜리사 몬드라곤 감독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후손들은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진 매우 다른 나라를 배경으로 성장했다고 봐야 한다"며 "한인 후손들이 선조의 슬픔을 공유하며 멕시코 내 공동체로 자리 잡은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 3·4세 후손 정계·의료계 활약

현재 후손들은 5세대까지 이어졌다고 한인후손회는 전했다. 3·4세 후손 중에는 상원 의원(노라 유)과 주 대법원장(리스베스로이 송)을 지낸 사례도 있다. 후손들은 한국 사회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며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각종 동포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후손들의 바람을 전달하는 마르타 김 멕시코시티 한인후손회장(전문직)은 "선조들의 희생을 기리고 후손들이 더 단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후손들은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인의 높은 관심을 기반으로 양국 간 교류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분석 자료를 보면 중남미 지역 콘텐츠 시장은 2021년 이후 6년간 연평균 예상 성장률(6.63%)이 전 세계 평균 예상 성장률(5.19%)을 웃돌 것으로 관측됐는데, 특히 멕시코 내 한국 문화 소비 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한류 열풍 타고 현지인 호감도 높아져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올해 한인 이주 120주년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외동포청과 국가보훈부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또 한편으로는 한인 후손에 대한 전수 현황 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지에서는 한국이민사박물관이 있는 유카탄주 메리다를 비롯해 캄페체주 캄페체가 5월 4일을 '한국의 날'로 지정해 기리고 있다. 유카탄주 정부 차원에서도 같은 날을 '한국의 날'로 기념한다. 2021년에는 멕시코 연방의회가 특정 국가 기념일로는 최초로 '한인 이민자의 날'을 지정했다.

이처럼 멕시코에선 이주 120주년을 맞이한 한국인들의 족적을 기리고,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려는 노력이 한 해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

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이상덕 청장 “입양동포 국내 정착지원은 국가의 책무”

동포청, 입양인 국내 정착지원 첫 정책간담회 개최...전문가·입양동포 60여명 참가



4월 2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입양 동포들의 국내 정착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첫 전문가 정책 간담회에 앞서 이상덕(왼쪽서 6번째)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한 주요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 세계 20만 입양 동포들의 국내 정착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첫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4월 2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부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입양인들의 국내 정착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3월 동포청의 ‘입양 동포 전담 상담창구’ 개설 후속 조치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해외입양인연대와 공동으로 주관했다.

간담회에는 이상덕 동포청장을 비롯해 이성현 서대문구청장,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유재훈 해외입양인연대 고문, 국내외 입양 동포 및 관련 전문가 등 약 60명이 참가했다.

이상덕 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간담회는 입양 동포와 정부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한 첫걸음이어서 의미가 크다”면서 “동포

청은 입양 동포와 정부 간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르면 입양동포는 법적으로도 당연히 재외동포에 속하고, 입양 동포를 지원하고 정착을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재외동포청은 입양동포와 모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의 가족 찾기 사업 ▲재외동포청의 전담 창구 운영 사례 및 입양 동포를 위한 금년도 추진 계획 ▲서대문구청의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례 ▲입양동포 커뮤니티 교육센터 운영방안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제1주제는 아동권리보장원 안준한 부장이 발표했다. 안 부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의 해외 입양인들이 친가족을 찾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아동권리보장





입양 동포들의 국내 정착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첫 전문가 정책간담회에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원의 주요 사업으로 우선 입양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자신의 입양 기록과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양인은 자신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부사업으로 무연고 입양인 DNA 등록절차와 대안적 가족 찾기 절차를 지원한다. 입양인의 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과 언론·방송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주제는 김채영 재외동포청 차세대동포과장이 맡았다. 김 과장은 입양인 전담창구 운영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전담창구는 재외동포청이 국내외 입양 동포들의 친부모 등 가족찾기를 비롯해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상담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 25일 문을 열었다. 이후 4월24일까지 약 1개월간 총 119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중 24건은 가족찾기, 9건은 입양기록 열람 및 정보 추가 요청, 그 외 정보공개청구, DNA 등록 등 다양한 민원이 포함됐다. 4월중에는 재외동포 사증(F-4), 자녀의 이중국적 허용 여부 관련 문의가 증가한 점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국내 체류하고 있는 해외입양동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국내 체류 중인 해외 입양동포의 체류 현황 및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착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오는 11월 서울에서 세계한인입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전 세계 90명의 입양동포를 초대해 입양 후 첫 모국 방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양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연대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목적이다.

제3주제는 도규리 서울 서대문구청 가족센터 팀장이 '입양인 가


족 국내 정착 지원 사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서대문구청은 입양인 가족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기본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한국어 교실 운영사례를 소개했다. 또 한식조리사 자격증 과정 등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사회 진출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자녀 양육 능력 및 가족관계 향상을 위해 온 가족 보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개인의 심리상담과 부모양육 상담, 가족캠프와 김장 등 이웃 나눔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제4주제는 독일 입양인인 김 올리버(Kim Oliver)가 '해외입양인 교육커뮤니티센터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그는 해외 입양동포들의 모국 방문과 모국 정착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 해외 입양동포 간의 소통과 각종 모국의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해외입양동포를 위한 교육커뮤니티센터가 설립된다면 입양 후 성장과정에서 한국 문화 및 언어가 단절된 이들이 모국을 방문하거나 모국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해소하고 입양인의 한국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어, 한국사, 전통문화, 사회제도 등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화된 공간 및 교육자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입양인 교육커뮤니티센터를 통해 입양인의 정체성 회복 및 모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건강한 커뮤니티 형성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입양인이 안정적으로 모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4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연수 백석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에는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관, 김향은 고신대 교수, 해외 입양 동포인 아만다 조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입양인의 국내 정착 지원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에서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미국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인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았다. 정 조사관은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권을 미취득한 한인 입양인들을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분류해 미국에서 추방하겠다는 조치는 미국을 당연히 모국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매우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조사관은 미국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실태를 파악하고, 1만9천명에 달하는 이들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국내외 입양 동포를 위해 실시간 유튜브 방송([www.youtube.com/watch?v=fiNtVq3D04qw](http://www.youtube.com/watch?v=fiNtVq3D04qw))도 진행했다. 

# “우리는 하나다”...한상경제권 실현, 이제 시작입니다”

## 이경철 총회장이 말하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과와 비전

**재**외동포청과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가 미국 애틀랜타에서 4월 17~20일(현지시간) 공동 개최한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역대 최고 행사로 평가받으면서 막을 내렸다. 나흘간 총 6억 6천만달러(한화 약 9천9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K-푸드, K-뷰티 상품을 중심으로 4천990만 달러(한화 약 740억 원 규모)의 현장 계약이 체결돼 한류 상품에 대한 미국 현지의 인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글로벌 한류 인기로 힘입어 K-바이오, K-뷰티, K-푸드 등 분야에 특화해 기업전시회를 마련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미국의 상호 관세 등 관세장벽이 높아진 시점에서 대기업에 이어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투자 진출도 본격화됐다는 점도 이번 대회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이번 대회를 재외동포청과 함께 공동주최한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이경철 총회장을 서면으로 만났다.

### 역대 최고의 성과를 기록한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소감이 궁금합니다.

전 세계의 한상들과 동포경제인, 대한민국의 우수 중소기업들과

각 지자체, 주요 경제단체들이 합심하여 ‘한상경제권으로의 시작’이 된 제 23차 한인비즈니스대회에 일조를 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의 발전과 성과를 기대합니다. 재외동포청과 같이 주최를 하며 국가행사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우리 회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 이번 대회와 관련해 특별히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일까요.

전시회의 백미는 성과인데, 20일 폐막식에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님께서 현장 구매계약실적 4천990만달러, 현지공장 계약 4천500만달러, 스타트업 투자계약 1천만달러, 상담금액 6억 6천만달러를 발표하실 때, ‘현장계약이 1억달러가 넘는 역대 최고의 성과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 이번 대회에서 가장 중점을 둔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대회가 미국에서 열리니 미국 현지 정부, 경제단체, 기업들과 대한민국의 기업들, 전 세계 한상들이 직접 교류하고 소통하며 미국현지진출을 하는 직접적인 성과를 기대했습니다. 계약금액도



4월 17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막식에서 주요 참가자들이 축하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서부터 이경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총회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





이경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총회장

잘 나왔지만 G2G, B2G, 스타트업 경연, 투자미팅, 공공조달포럼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앞으로 더 많은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합니다.

### 역대 대회와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미국 물가가 비싸 한국 내에서 하는 것보다 비용은 더 들었지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 '한미동맹강화'를 말씀하셨고, 연방 중소기업청장 켈리 뢰플러가 기조연설에서 '한미 공동 동반성장'을 강조했다듯이 이번 대회는 한미 양국의 발전적인 동반 성장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16개주에서 오신 미국 정부의 주요 경제관계 인사들과 한국에서 오신 지자체, 경제단체, 기업들과 네트워킹하며 양국 동반성장을 약속했습니다. 홈 디포, 코스트코 구매담당자들을 비롯한 많은 미국 현지 기업 바이어들이 왔었고, 한국 내에서 열린 대회와는 이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 참가 기업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가라'는 말이 있듯이 미국진출을 위해서는 도전정신과 용기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잘 왔다', '좋은 자리를 만들어줘 고맙다.'는 말씀

을 하시더군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께서 미국시장은 규모가 틀리다는 말씀을 하시며 전북소재 태양광 패널 리사이클링 업체에서 미국 기업과 2천800만달러 상당의 제품을 6월말까지 납품하는 판매계약을 했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2023년 제21차 대회 경험으로 이제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는 계속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 바이어유치위원회에서는 참가기업과 바이어들을 계속 연결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연결하고, 서포트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진행할겁니다.

### 이번 대회가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이번 대회가 참가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장 및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던 미국진출사업에 이번 대회는 네트워킹이나 시장 조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경북 참가업체 한 곳은 한식과 막걸리(하우스 브루어리)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번 대회에서 현지 파트너를 만나게 되어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번 대회 최고 스폰서이기도 한 네이처셀은 현지 전국 판매망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여러 방면에서 이번 대회가 사업적으로 어떤 계기, 촉매제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과는 계속 될 것입니다.


### 미국 경제 변화 속 미주 한인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며 자국우선주의, 고율 관세 부과, 공급망 불안정, 소비자 심리 위축, 금융 불확실성 등으로 한국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총연합회에서는 공급망 다변화 지원, 네트워크 지원, 한국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수립 지원 등의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미주 한인 기업인들과 차세대 경제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뿌리를 잊지 말고 한미 양국의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과 국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이번 제23차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재외동포청과 함께 주최하며 느낀 것은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으로서 국익과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 재외동포들은 항상 '우리는 하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재외동포청장, 베트남서 동포정책 강연...한인 소상공인도 격려 세계한인총연합회 주최 세미나 참석...한인타운도 방문

재외동포청 이상덕 청장은 지난 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세계한인총연합회(세한총연) 대륙별 한인회 역량 강화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청장은 2일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재외동포 정책과 해외 주요국 사례'를 주제로 현재 동포청의 핵심 정책과 추진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이스라엘, 중국, 아일랜드, 인도 등 주요국의 재외동포 정책과 동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와 민간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 1일 개막한 이 행사는 동포청 후원으로 세한총연이 해외에서 처음 개최한 한인회 역량 강화 세미나다. 베트남 주요 동포 단체장을 비롯해 재일민단, 아시아, 미주, 유럽, 캐나다, 대양주, 중남미 등 대륙별 한인회 총연합회장들이 참석했다.

이 청장은 지난 1일 진행된 개회식에서 "전 세계 한인사회는 3~4세대까지 빠르게 세대교체가 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 지역한인회의 자생력과 역량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세계한인총연합회 대륙별 한인회 역량 강화 세미나'에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왼쪽서 5번째)이 세한총연 대륙별 회장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청장은 하노이 한인타운인 미딩 지역을 방문해 동포 소상공인의 현장을 둘러보고 현안을 청취했다.

## 동포청, 2026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지 인천에 대회 깃발 전달 이상덕 청장·유정복 시장, 22일 전달식서 대회 성공 개최 결의 다져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22일 인천광역시 송도에 있는 부영타워 30층 소재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내년 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지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에 대회 상징인 '한상기(韓商旗)'를 전달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대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2026년도 대회 개최지를 인천광역시로 의결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가한 이상덕 청장과 유정복 시장은 2026년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인천 유치에 축하하고,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도 다졌다. 또 한상기 전달을 계기로 두 기관이 향후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긴밀히 협업하기로 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22일 인천광역시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이상덕(오른쪽) 청장이 유정복 인천광역시시장에게 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대회깃발을 전달하고 있다.

한 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모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글로벌 행사로,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 동포청-상지대, 글로벌 인재 유치·동포 정착 지원 MOU

저출생·고령화 극복 위해 동포 취·창업 교육과 연구 협력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강원도 원주시 소재 상지대(총장 성경룡)와 저출생 및 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와 재외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8일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교육, 연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해외 동포 인재 유치와 국내 정착 지원에 긴밀히 협력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외동포 교육 프로그램, 연구 프로젝트 및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재외동포 대상 창업·취업·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운영 ▲



이상덕 청장(오른쪽)이 성경룡 상지대 총장과 MOU를 체결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재외동포 관련 콘퍼런스, 행사 등의 공동 개최 등이다.

상지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이상덕 청장은 “해외에 700만명이, 국내에는 100만명이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역량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지방 주요 거점 지역에 소재한 상지대와 재외동포 분야에서 교류하며 협력하는 일은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상지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외동포청과 함께 국내외 인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외동포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재외동포청 서포터즈 ‘동포유’ 출범

재외동포와 동포청 위한 ‘청년 크리에이터’ 희망하는 14명 선발·위촉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 서포터즈 ‘동포유’가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포터즈 명칭 ‘동포유’는 전 세계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을 연결하고 소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포유’ 서포터즈는 청년의 시각에서 직접 만든 영상, 사진, 글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외동포청의 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1기 서포터즈로 국내 12명 및 아랍에미리트(UAE)와 독일에 체류 중인 청년 1명씩 총 14명을 선발해 위촉했다. 이들은 5월부터 12월까지 SNS 채널을 중심으로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청 관련 카드뉴스, 숏폼 영상 등 콘텐츠 제작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은 발대식에서 “서포터즈 여러분들이 자



제1기 재외동포청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신만의 감각, 열정, 그리고 시선으로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청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주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동포청은 서포터즈 활동 등을 통해 재외동포와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노르웨이 심장을 울린 한국인 음악계 거장 정순미

## 재외동포 최초로 노르웨이 국왕 수여 '성 올라브 훈장' 수훈



노르웨이 거주 한국 음악가 정순미 바랏듀 음악원 교수

노르웨이 음악계에서 오랜 세월 활약해 온 한국계 음악가 정순미 바랏듀 음악원 교수가 재외동포 최초로 노르웨이 국왕이 수여하는 '성 올라브 훈장(Order of St. Olav)'을 받았다. 훈장 수여식은 25일(현지시간) 오슬로에서 열렸으며, 노르웨이 사회와 문화 예술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자리였다.

'성 올라브 훈장'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가 훈장으로, 사회와 국가에 탁월한 공헌을 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1등급 기사 작위에 해당한다. 정 교수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비올리스트로서 수십 년간 노르웨이 음악 발전에 이바지하며 한국인의 위상을 높여 왔다.

### 바이올리니스트로 노르웨이 음악계에 큰 족적

정 교수는 서울대 음악대학에 입학한 후 17세의 나이에 프랑스

로 유학, 탄탄한 음악적 기반을 쌓았다. 이후 1981년 노르웨이 명문 음악 가문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바랏-듀(Stephan Barratt-Due)와 결혼하면서 노르웨이에 정착했다.

그는 노르웨이 최고의 음악 교육기관인 바랏듀 음악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1982년 노르웨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솔리스트로 데뷔한 이후 유럽, 아시아, 남아메리카, 미국 등지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쳤으며, 노르웨이 주요 작곡가들로부터 헌정곡을 받는 등 음악계에서 깊은 존경을 받아왔다.


특히 작곡가 올라브 안톤 토멧센이 그를 위해 작곡한 비올라 협주곡은 1995년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창단 75주년 기념 공연에서 초연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정 교수는 남편과 함께 여러 음반을 제작하고 노르웨이 국립TV와 라디오에 고정 출연하는 등 부부 예술가로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 한-노르웨이 문화교류 상징 인물로 자리매김

정 교수는 또한 청소년 오케스트라 '영 스트링스(Young Strings)'를 창단해 노르웨이 왕실 행사 및 노벨상 축하 공연을 맡는 등 차세대 음악가 양성과 문화예술 교류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정 교수의 공로는 다양한 수상으로 이어졌다. 오슬로시 문화상, 린데만 상, 노르웨이 예술위원회 공로상 등에 이어, 2010년에는 남편과 함께 노르웨이 최고 권위의 '안더스 아레 문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정 교수는 세 아들의 어머니로서도 가정과 사회 양면에서 모범을 보이며,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이 훈장은 저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문화와 음악이 노르웨이 사회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수훈 소감을 전했다.

한국의 예술정신을 품고 노르웨이 무대에서 꽃을 피운 정 교수의 발자취는 문화와 음악을 통해 국경을 넘는 감동을 만들어낸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 뿌리를 향한 귀환, 문화를 통한 미래...동포 연대의 길

“조국은 단지 장소가 아니라, 기억이고, 뿌리이며, 마음이다.”

100여 년 전, 러시아 연해주에서 우리 조상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뿌리를 내렸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단 한 가지, '자식들 만큼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놓지 않았다.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녀에게는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배우고, 공동체를 세우며 사회 속에서 역할을 찾아 나섰다.

그 희생의 결과로, 고려인은 세대가 흘러도 어느 나라에서든 교육을 통한 성장과 책임감 있는 시민 의식으로 인정받았다. 지금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CIS 국가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교육 수준 상위권을 기록하며 각국에서 신뢰받는 구성원이자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당연한 일원이 되었고, 민족의 명예를 지켜냈다.

그러나 조국이라 불리는 이 땅에서는, 그 성취가 온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11만 명이 넘는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은 기꺼이 조국을 향해 귀환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대와는 다른 현실이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언어 장벽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설명할 수는 없다.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 생활 규칙의 낯설,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심지어는 미묘한 차별적 시선까지.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고려인들의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한국어 교육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적응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단지 언어를 익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역사와 문화, 사회 규범과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 정체성과



채예진  
(사)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KGN) 이사장


공동체 의식을 함께 다루는 통합적 교육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KGN은 단순한 동포 지원 단체를 넘어선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고려인의 정착을 돕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다음 세대에 자긍심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 한국어 교육, 역사·문화 체험, 생활 적응 프로그램, 청소년 장학 사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장벽은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자 제도이다. 현재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H-2 혹은 F-4 비자를 통해 입국하고 체류하고 있지만, 이 두 비자 간에는 권리와 제약, 체류 안정성 등에서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H-2 비자의 경우 단

순 노동직에 제한되며 직종과 체류 자격에 대한 많은 제약으로 인해 많은 고려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국적, 학력,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고려인들이 통합된 동포 비자 체계 안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은 단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포를 대하는 태도와 철학의 문제이다.

정착은 단지 이민 정책이 아니다. 정착은 소속감을 만드는 일이자,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그리고 KGN은 바로 그 정착의 본질을 지켜내고자 하며 동포들을 단순히 돕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설계할 동반자로 바라본다. 고려인이 이 땅에서 다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가 질문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작은 씨앗 하나가 뿌리를 내려 큰 나무가 되듯, 오늘 우리가 심는 이해와 연대의 씨앗은 머지않아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 큰 나무로 자라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는, 분명 고려인과 대한민국이 함께 키워낸 또 하나의 희망이 될 것이다. 

※ 기고자의 주장이나 의견은 재외동포청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청 주요 일정

- 13일: 오사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
- 15일: 프랑스 주요 동포단체장 초청 간담회
- 16일: 유럽한글학교협의회 연수 개회식 / 프랑스 입양동포 초청 오찬간담회
- 17일: 파독 근로자 및 독일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
- 21일: 재외동포청 서포터즈 '동포유' 발대식
- 22일: 2026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지 인천에 대회 깃발 전달식
- 27~30일: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

### 2025년 5월 재외동포청장 동정

- 1일: 세계한인총연합회 대륙별 한인회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재외동포청장 주최 만찬
- 8일: 재외동포청-상지대학교 업무협약식
- 12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한일우호친선모임'
- 13일: 오사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
- 15일: 프랑스 주요 동포단체장 초청 간담회
- 16일: 유럽한글학교협의회 연수 개회식
- 16일: 프랑스 입양동포 초청 오찬간담회
- 17일: 파독 근로자 및 독일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
- 18일: 베를린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
- 22일: 신주쿠한국상공인연합회 면담  
2026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기 전달식
- 27일: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회식
- 28일: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재외동포청과의 대화'

## 재외동포청 공지

# 2025년 제1기 한국어 특별강좌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재외동포웰컴센터, 한국어 교육과 전통문화 체험 기회, 전 강좌 무료 제공

재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언어·문화 교육이 오는 여름 인천에서 펼쳐진다.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웰컴센터는 2025년 제1기 한국어 특별강좌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수강생을 5월 21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문화의 매력을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재외동포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강좌당 정원은 약 15명 내외로 제한된다.

교육 및 체험 일정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 특별강좌는 6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되며,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6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단 하루, '한지 무신 조영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된다.

모든 수업은 인천 연수구 재외동포웰컴센터(부영송도타워



2025년 제1기 한국어 특별강좌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포스터

3층)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리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수업 등록은 온라인 신청(구글폼)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링크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특별강좌 신청: <https://m.site.naver.com/1HQLP>. ▲문화·체험 프로그램 신청: <https://m.site.naver.com/1HQNM>.

신청 마감은 한국어 특별강좌는 6월 11일,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6월 4일까지다.

재외동포웰컴센터 관계자는 “한국을 찾는 동포들이 언어와 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익히고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재외동포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재외동포협력과(032-440-1567~9)로 하면 된다.



먼저 만나면 더 좋습니다

# 노후준비 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서비스영역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

## 제공서비스

노후준비 진단 · 상담 · 종합재무설계 ·  
교육 · 관계기관 연계

## 제공방법

국민연금 40개 거점지사 전문상담사 ·  
강사가 무료로 제공



**방문, 전화,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하세요!**

<http://csa.nps.or.kr>



# 더 큰 대한민국, 재외동포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 2주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유튜브



재외동포청 인스타그램